LG전선(주)

올 매출목표 1조 7600억원

LG전선(대표 권문구)이 해외사업 확대와 저효율 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매출 목표 1조 7600억원을 달성키로 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LG전선은 올해 매출을 지난 해보다 11% 늘어난 1조 76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고압전력, 광케이블 분야 등 세계적으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 떠오르는 시장) 부문에 주력하는 한편 노령화된 저효율 구조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전선의 경우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1조 3000억원으로 정하고 이중 해외법인 매출 500억원, 수출 3억달러 등 모두 35%를 해외에서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불황이 예상되는 국내시장에서 탈피, 주력사업인 광케이블과 초고압전력 부분을 해외시장에 집중하는 한편 그 동안 진출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중앙아시아와 CIS, 남미 등 신시장 개척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사업 강화를 위해 '수출'이라는 말 대신 필요할 경우 '지역판매' 또는 '국가별 판매'로 규정, 국내/해외로 구분하던 시장의 개념을 국경이 없는 단일 시장으로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한편 '96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계사업 부문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4600억원으로 정하고 특히 해외 판매의 경우 작년의 2배인 6000만달러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작년 중국 청도에 현지 회사와 합작으로 냉동공조기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시장 다변화와 생산기지 현지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선은 올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의 구조조정은 상반기 내에 모두 마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주)

모터 일체형 인버터 개발

현대중공업이 최근 국내 최초로 모터와 인버터가 함께 들어가는 「모터 일체형 인버터」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제품은 모터 위에 인버터를 탑재한 것으로 컨트롤 패널을 없애 설치공간이 줄었고 기존의 모터, 인버터, 패널을 따로 설치하는 제품에 비해 5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타력통풍식 인버터전용 모터와의 조합으로 속도의 제어 범위가 확대되었고, 모터수명 향상은 물론 인버터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용량이 3.7kW 이하로 소형 크레인, 컨베이어, 팬, 펌프, 공작기계 자동화 설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2.2kW와 3.7kW 용량은 3월 말경부터 판매에 들어가며 0.2, 0.4, 0.75, 1.5kW 용량은 5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6월부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모델 개발 성공을 계기로 연간 300억원대로 추산되는 국내 소형 모터, 인버터 시장은 물론 아직까지 일체형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세계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LG산전(주)

에스컬레이터, 본 고장 유럽에 상륙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본고장인 유럽에 국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

LG산전은 최근 독일 베를린의 '멀티센터(종합쇼핑센터) 프로젝트'에서 현지 업체인 랑게르(RANGER)사와 공동으로 에스컬레이터 23대, 엘리베이터 20대 등 총 43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LG산전-랑게르 양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쉰들러(스위스), 티센(독일) 등의 유럽업체와 오티스 등 미국의 다국적 엘리베이터 업체들을 기술력, 가격 등의 종합평가에서 앞서 수주에 성공했

다.

LG산전은 23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창원공장에서 생산, 오는 9월에 선적하여 12월에 설치를 완료한다. 수출기종은 LG산전이 세계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저소음, 일체형 에스컬레이터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에스컬레이터를 독일에서 조립할 필요없이 설치만 하면 된다.

이번 수출을 계기로 LG산전은 유럽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동유럽 국가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엘리베이터 수출도 곧 출시될 예정인 신모델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지 수주활동 강화를 위해 LG산전은 '99년 중에 판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공동 수주사인 독일 랑게르사와는 향후에도 독일 시장에서 프로젝트별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LG산전은 미국, 유럽 시장 진출에 이어 주요 수출시장을 중국, 동남아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수출 다변화 전략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어 '98년 2억달러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출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독일 랑게르사/누드형 등 특수형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전문 엘리베이터 업체로 누드형 엘리베이터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연 500대 정도이다).

한편, LG산전은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기술제휴로 반영구적인 절연수명이 유지되는 「폴리타이트 T」 절연시스템을 적용한 고압모터를 개발, 4월 중순부터 국내시장에 본격 공급한다.

「폴리타이트 T」 절연시스템은 에폭시계 수지를 배합한 특수 바니시(절연용 니스)를 진공상태에서 모터의 권선과 고정자를 절연 처리하는 첨단 절연시스템으로 온도, 습기, 약품, 진동 등에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다.

특히 LG 제품은 에폭시계 8종 樹脂(경쟁사 제품은 4조)를 사용함으로써 절연 성능을 한 단계 높였다. 고압모터는 주로 압축기, 펌프, 송풍기 등 3,300V 이상의 고전압이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에 장착되기 때문에 절연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제품은 냉각구조를 개선시켜 기존 제품보다 작고, 가벼워졌으며, 소음 및 진동을 줄여 설치 현장에서의 운전을 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부품을 표준화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사양에 신속히 대응하는 종합 생산관리시스템도 갖추었다.

한국전기연구소

2001년까지 43억원 투입, 초고압·대전류 표준 측정사업 추진

고전압측정시스템의 국가표준이 구축된다.

한국전기연구소(소장 윤문수) 전력기기연구부는 오는 2001년까지 43억원의 자금을 투입, 초고압·대전류 표준 측정사업을 추진한다.

'98년도 과학기술부 신규 특수사업의 지원을 받는 초고압·대전류 표준 측정사업은 초고압·대전류 측정 전문연구소인 전기연이 주관, 추진하며 산자부, 표준연구원 등 정부부처와 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전압 표준 및 교정분야는 35m×55m×26.5m 규모의 홀과 4MV 발생기(충격전압) 및 1.1MV(교유전압)을 보유한 전기연구소가 담당하고 표준연구원은 콘덴서, 저항, 리액터 등 부분 부품교정을 담당한다.

전기연구소는 사업기간 중에 고전압 표준기기의 구축과 고전압 교정기술의 확보, 산업체 설비의 교정 및 측정정도 향상을 사업의 주테마로 잡고 있다.

전기연이 추진하는 국가표준 구축이 완료될 경우 국산 전기기기 제품의 국제적인 성능 보장 뿐만 아니라 고품질화와 고신뢰화를 도모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규모가 연간 5억달러를 상회하는 고전압중전기기시장의 경우 수출, 수입시 각국 규격에 의해 시험을 따로 하지 않고 국가간 상호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다.

고전압시험의 국제규격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시험에 사용되는 고전압 측정시스템의 정확도가 국가계량표준기기로의 추적성(Traceability)을 갖도록 해 중전기기의 성능 검증에 신뢰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